

시작하는 운양 스마트폰 리터러시

운양중학교 교사 서윤주

2015년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인터넷 과의존 실태조사에 의하면 연령별 과의존위험군 비율은 10대 31.6%(1,704천명), 20대 24.2%(1,609천명), 30대 14.5%(1,108천명) 등의 순으로 연령층이 낮은 10대와 20대에서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0대와 20대는 스마트폰 사용에 있어서도 과의존 고위험군이 약 4.0%대이며, 잠재적위험군 또한 20.0%를 넘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교도 매년 4월 실시되는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습관 진단조사에 적극 참여하여 철저한 결과 분석을 통해 스마트폰 ‘잘 사용하기’를 위한 캠페인 활동 및 다양한 중독 예방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필수품이 되어버린 스마트폰의 사용을 무조건 제한하는 것보다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잘 사용하는 것인가’를 함께 논의하여 스마트폰의 바른 사용 습관을 기르는데 목표를 둔다.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위해 본교가 실시한 첫 번째 프로그램은 경기사이버안심존 참여로 작년 하반기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다.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학기 초 전교생을 대상으로 가정통신문을 배부하였으며, 담임 선생님의 적극적인 독려로 전교생의 30%에 달하는 213명이 참여를 희망하였다. 스마트폰의 바른 사용 습관을 기르기 위한 학생과 학부모님의 강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작년에 이어 올해 또한 참여의사가 높은 만큼 효과적인 사이버안심존 프로그램이 진행 될 수 있도록 학부모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강사님으로부터 스마트폰으로 인한 다양한 문제점 및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 실태, 사이버안심존 프로그램의 사용법과 장점 등을 안내받을 수 있었다. 평소 자녀의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자녀와의 마찰을 경험하신 학부모님은 중간 중간 큰 호응을 보이셨으며, 프로그램 사용에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표현하셨다.



학부모 연수

학부모 연수 후 사이버안심존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신청 학생 명단을 일

괄 등록하였으며 스마트폰 사용 시간 패턴을 분석하고 과의존 학생들을 파악하여 학생 상담 자료로 활용하였다. 특히 4월에 실시한 인터넷·스마트폰 사용 습관 진단조사 결과 주의·위험 사용자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별도로 관리하여 매달 1회 실시된 담임교사와의 상담 자료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자율성이 높은 프로그램의 특성상 시간이 흐른 후 삭제 의심 학생이 증가하였고 관리에 어려움이 나타났다. 사이버안심존의 취지를 재 안내하고 참여를 독려했으나 상당수의 학생이 거부감을 표현하였다.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은 반드시 고민해볼 문제이다.

본교는 위와 같이 사이버안심존 참여를 시작으로 스마트폰 ‘잘 사용하기’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스마트폰 중독 예방 활동으로 스마트폰 이용 자율 실천 규칙 10개 항목을 제정 후 학급 및 컴퓨터실에 게시하여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와 실천을 유도하였으며, 인터넷·스마트폰 바른 사용을 주제로 표어·포스터 대회 및 사이버 언어 순화(바르고 고운말 쓰기) 표어 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작품을 시상하고 전시하였다.



인터넷 스마트폰 바른사용 표어, 포스터 대회



사이버 언어문화 표어 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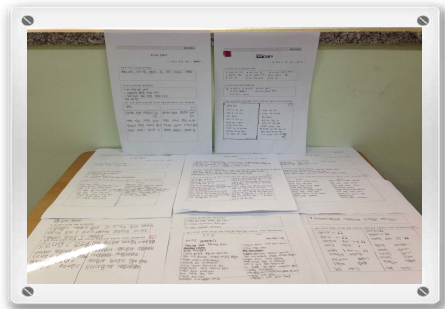
체험 프로그램 외 다양한 강의도 진행하였다. 창의적 재량활동 시간을 통해 전교생 대상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사이버폭력을 주제로 학생, 교사, 학부모 대상 초청 강의를 진행하였다. 강의를 통해 악성댓글의 폐해를 알아보고 스마트폰의 역기능 및 스마트폰의 무절제한 사용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대안활동을 탐색해보았다. 또한 문화발



2016 저작권 교육

전을 저해하는 불법 복제를 예방하고 다양한 미디어 창작물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으로 ‘2016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을 실시하여 저작권의 개념 및 저작권의 소중함, 저작권 보호 방법 등을 학습해보았다. 12월에는 교육과정 재구성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3학년 전체 학생 대상 도박중독예방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기도 추천 사업 중의 하나인 ‘2016 스마트폰 이별주간’에는 스마트폰 4행시 짓기 및 전시, 건강 체조 동영상 공유를 통한 수업시간 자율 활용, 1인 1개 책갈피 제작 및 우수작품 전시, 1인 1개 로고송 창작 및 모듬별 발표 수업을 실시하였다. 특히 4행시 만들기, 책갈피 제작, 로고송 창작은 모듬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이별주간 의식화 및 내면화의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창작



레몬교실(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

본교는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는 활동만큼 인터넷·스마트폰 주위, 위험 사용자의 상담치료 및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학부모님의 동의를 받아 주 1회, 총 3회기 집단 상담을 실시하여 스마트 명언, 스마트폰 대안 활동 탐색, 자아 발견 활동 등을 진행하였다. 집단상담 실시는 스마트폰 주위, 위험 사용자군 학생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 조절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었으며, 스마트폰의 장단점을 인식하고 스마트폰을 대체할 수 있는 활동을 구체적으로 탐색하여 적절한 사용 계획을 세워보았다.

2016년도에 진행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마음속에 가능한 많이 내면화되었길 바라며, 12월 도박중독예방교육을 마친 후에는 올 한해 본인의 스마트폰 사용 습관을 구체적으로 기록해보는 ‘습관 돌아보기’ 활동과 즉시 실천 가능한 ‘습관 계획하기’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추후 더 나은 프로그램과 콘텐츠 제공을 위해 본 교사도 교육활동의 미흡한 점을 분석하여 차 년도를 계획하는 반성과 고민의 시간을 마련할 것이다. 또한 사이버안심존 프로그램 참여와 운영에도 부족한 점이 많았으나 2017년도에는 더욱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학생들의 스마트폰 이용 습관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다짐해 본다.